



## 글로벌스

전동차량 PCTC로 최초 운송



인증종합물류기업 글로벌스(대표 이광선)가 현대 로템의 필리핀향 수출 전동차 3량에 대해 자동차 운반선(PCTC)을 이용, 필리핀의 마닐라항까지(필리핀 현지 시각, 3월19일 03시 도착) 완벽하게 운송했다고 3월20일 밝혔다.

그동안 철도차량은 벌크선박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번 현대로템의 필리핀, 미국, 인도, 브라질 등지로 수출되는 철도차량에 대해 자동차 운반선을 이용하여 저렴한 비용, 안전성 제고, 기존 벌크선박 이용시 대비 3일 가량 운송시간을 단축시킴으로 고품질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글로벌스 관계자는 "현대로템의 창원공장에서 육로를 통해 마산항까지 운송한 뒤 자동차 운반선을 이용해 필리핀 마닐라항까지의 전체 운송을 기획하며 비용 측면의 경쟁력은 물론 운송리드타임을 단축하는 고품질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자동차 운반선의 최대 장점인 △우수한 성능의 선내 통풍장치로 인한 습기 방지 △전용화된 화물 고박 장치 및 상시 화물 상태 점검을 통해 화물의 손상을 차단함으로써 하주사인 현대로템은 물론 고객인 필리핀 정부에게 높은 품질을 보

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글로벌스는 이번 1차 운송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게 됨에 따라 5월과 6월에 있을 총 15량의 추가 운송에도 PCTC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스는 3월13일 역삼동 현대해상빌딩 대강당에서 2백여명의 주주가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주주총회에서 글로벌스는 지난해 3조 652억원의 매출과 1,291억원의 영업이익, 1,177억원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영업보고가 있었으며, 이광선 사장이 등기이사로 선임됐다.

글로벌스는 지난해 유가, 환율 등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2.1%의 매출 성장을 이루었으며, 금년 경영목표는 매출 3조4,000억원으로 밝힌바 있다.

## 대한통운

대형화물선 육상운송 성공

초중량품 운송의 명가 대한통운이 국내 최초로 대형 화물선의 육상운송에 성공했다.

대한통운(대표 이국동)은 경남 고성 동해면에 위치한 지오해양조선 공장에서 약 300여미터 떨어진 바닷가까지 대형화물선 한 척을 육상운송하는데





성공했다고 3월12일 밝혔다.

이번에 운송된 선박은 지오해양조선이 건조 중인 6,000DWT(재화중량톤수)급 아스팔트 운반선으로 자체 무게만도 3,000톤, 중형차인 소나타 2,000대 분이다. 특히 전장 110m, 폭 18.2m에 높이가 10m로 세워놓으면 30층 빌딩과 맞먹는 엄청난 크기다.

대한통운은 2주 전부터 운송계획을 수립하고 십여 차례의 모의 운송을 실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한정봉 대한통운 중량품사업부장은 “운송 대상물이 워낙 크고 바다를 항행하는 것을 전제로 건조된 선박이기 때문에 육상에서는 무게중심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 운송에 어려움이 컸다”고 전했다. 3백 미터를 이동하는데 총 3시간이 소요됐는데, 1분에 평균 1.7미터를 간 셈이다.

이처럼 특수한 화물운송을 위해 대한통운은 초중량품 전용 특수장비인 멀티모듈트레일러 31대를 동원했다. 일명 ‘지네발 트레일러’로 불리는 이 장비는 유압을 이용해 높낮이 조절이 자유로우며, 다수의 타이어가 달려 있어 무거운 하중을 분산할 수 있다. 이번에 투입된 멀티 모듈 트레일러는 124축 규모로 496개의 타이어가 달려 있다.

회사 측은 “최근에는 작업시간 단축과 비용절감을 위해 배를 육상에서 건조해 바다로 옮기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통상 선박을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눠 운송하는 경우는 자주 있지만 이번같은 거의 완성된 배 전체의 운송은 유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통운은 마산 창원 간을 잇는 마창대교 상판, 부산 광안대교 구조물 등을 비롯해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 고리 원자력발전소 기자재를 운송하는 등 다양한 초중량품 운송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수행해왔다.

## 대한해운

초대형 벌크선(VLOC) 명명식 거행



대한해운(대표 이진방 회장)이 4월3일 20만 7,000DWT급 초대형 벌크선(VLOC) ‘아스터’호의 명명식을 개최했다.

이날 명명식에는 이진방 대한해운 회장, Shinjiro Mishima Universal 조선

소 사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Universal 조선소 Tsu야드에서 성황리에 행사가 치뤄졌으며 이진방 회장의 부인인 박순옥 여사에 의해 ‘K. ASTER(아스터)’ 호로 명명됐다.

아스터호는 포스코와의 장기 해송운송계약에 따라 앞으로 18년간 약 4,600만톤이상의 원료수송에 투입될 예정이며 호주, 브라질, 인도 등에서 제철원료를 선적해 광양, 포항 제철소에 양하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투입될 아스터 호는 연간 2,000만달러, 18년 동안 약 3억6,00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이번에 명명된 아스터호를 비롯해 포스코에 투입되는 사선은 총 12척으로 늘어났다. 대한해운은 국가기간산업 원자재 수송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해운은 40여년 간의 전용선 사업을 통해 포스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우량 회주와의 사업을 토대로 하여 현재와 같이 변동성이 큰 시황 하에서 안정적 수익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진방 회장은 이날 명명식에서 “국가산업발전엔 필수적인 원자재 수송을 적기에 그리고 안전하게 수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동영해운

박영진 전무 사장 승진

동영해운은 3월20일 주주총회를 열고 박영진 전무를 신임 대표이사 사장 선임했다. 김병례 대표이사 사장은 4월1일자로 퇴임했다.

이번 인사는 이미 예견됐던 사항으로 김병례 사장은 최근 회장을 맡고 있던 황해정기선사협의회(YSLC)에서 개인적 사정으로 물러난 바 있다.

또한, 동영해운은 지난해 15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전년인 2007년 대비 무려 460% 달하는 이익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동영해운은 공시를 통해 이같은 영업실적으로 공개했다. 매출액 또한 지난해 1,044억원을 달성하며 전년인 2007년의 매출액인 781억원 대비 33%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지난 2007년 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2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함으로써 흑자로 전환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편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동영해운의 연결대상중속회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 14호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중 외화환산 특례규정을 당기에 적용함에 따라 당사의 당기의 순자산과 순이익이 각각 58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 STX그룹

1500명 '정규직'으로 채용

STX그룹(회장 강덕수)이 3월23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2009년 상반기 대졸 공채를 시작했다.

STX그룹은 올 상반기 대졸 공채를 통해 (주)STX를 비롯해, STX팬오션, STX조선해양, STX엔진 등 8개 계열사의 대졸 신입사원 5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STX는 3월23일부터 4월4일까지 그룹 채용 웹사이트인 [www.yourstx.co.kr](http://www.yourstx.co.kr)을 통해 원서 접수를 받고, 서류 심사를 통과한 인원을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인?적성검사(SCCT), 직무역량면접/영어면접(1차 면접), 인성 면접(2차 면접)을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중 STX그룹 인?적성검사인 SCCT(STX Creativity & Challenge Test)는 STX가 추구하는 고유의 인재상과 경영이념을 최대한 반영, 2006년 개발한 직무 및 업무능력 검사 시스템임. 크게 직무적성 검사와 인성검사로 나뉘며 총 4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이번 채용에서는 글로벌 인재를 객관적으로 선발하기 위해 채용 전형방식을 더욱 발전시켰다. 기존 1차 면접에서 실시됐던 자체 영어회화 면접이 공인인증 시험으로 변경됨에 따라, 모든 지원자들은 1차 면접 과정에서 공인 외국어 회화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또한 평소 인재경영론을 강조해온 강덕수 그룹 회장은 이번에도 역시 2차 면접에 직접 참석하여 대상자 전원을 평가할 예정이다.

STX그룹은 전국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지주회사 및 각 계열사의 임직원 및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나서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요 대학 내 채용 상담부스를 운영하는 등 우수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STX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조선·해운 시장 둔화로 채용인원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우수인재 선발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는 차원에서 올해에도 작년과 동일한 1500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STX는 올 초 부상무 이상 전 임원이 급여의 10%, 대표이사 이상 사장단이 급여의 20%를 가진 반납한 데 이어, STX엔진(용인), STX엔파크,



STX팬오션 등 각 계열사들이 임금동결을 선언함으로써 고통 분담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 신성해운

영업이익 2배가량 증가

신성해운(대표 박영규)이 지난해 146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해 전년대비 2배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성해운이 최근 발표한 2008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신성해운은 전년대비 28.3% 증가한 1,36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매출이 증대되면서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01% 증가한 146억을 기록했다.

그러나 전년대비 126% 증가한 154억원의 영업외비용이 발생하면서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10.4% 증가한 57억원을 올리는데 그쳤다.

## 유코카캐리어스

지난해 영업이익 1,058억원

2007년 81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던 유코카캐리어스(대표 안예빈왕)가 지난해 1,058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로 돌아섰다.

유코카캐리어스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코카캐리어스는 전년대비 44.3% 증가한 2조2,829억원의 매출 신장을 달성했으며 매출원가 및 판매비 절감 등에 힘입어 1,058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지난해 상반기 3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던 유코카캐리어스가 3분기에 94억원의 영업흑자를 내는 3분기 이후 흑자로 돌아섰다.

당기순이익도 기능통화제 도입으로 외환차손이 크게 줄어들어 21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유코

카캐리어스는 3분기까지 94억원의 영업흑자를 냈지만 기능통화제가 적용되지 않아 외환차손이 크게 발생하면서 3분기까지 2,70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 인터해운

매출액 60% 증가

인터해운(대표 이용배)이 지난해 매출액이 60%나 증가했지만 매출원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영업이익은 오히려 전년도 보다 1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해운이 최근 발표한 2008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인터해운은 전년대비 60.4% 증가한 61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매출원가가 71.9% 증가한 556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3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데 그쳤다. 2007년 영업이익이 37억원이었으므로 전년대비 거의 4억원정도 영업이익이 줄었다.

인터해운은 지난해 유가상승에 따른 운항비가 전년대비 2배정도 늘어난 것을 비롯해, 선비, 용선료 등도 전년대비 거의 2배정도씩 상승하는 등 매출원가가 크게 늘어 매출증대가 영업이익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영업이익은 줄어든 반면 영업외비용은 크게 늘어 당기순이익은 전년도 당기순이익 61억원의 절반수준인 27억원으로 감소했다.

인터해운은 지난해 환율급등에 따른 외환차손 및 외화환손실 등으로 29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통화옵션거래로 5억8,000만원의 손해를 보는 등 영업외비용이 전년대비 무려 682% 증가한 4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 창명해운

지난해 영업이익 146% 증가

창명해운(대표 이정재)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무려 146%나 증가한 1,793억원을 달성했다.

창명해운이 최근 발표한 2008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창명해운은 지난해 3588억원의 매출을 전년대비 매출이 2배이상 증가했고 이에 힘입어 1,79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창명해운의 2007년 영업이익은 728억원이었는데 지난해 무려 1,065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창명해운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49.9%로 50%에 육박하는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게 됐다. 창명해운의 2007년 영업이익률 40.9%였었다.

창명해운은 이처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당기순이익도 전년대비 155% 증가한 1,645억원을 달성했다.

## 태영상선

창립 54주년 기념식 거행

태영상선(대표이사 박영안)이 4월2일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사 미인대칭실에서 5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박영안 사장은 임직원들 모두가 신념과 열정을 가질 것을 당부하고 현장중심의 업무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경제 위기를 다 같이 극복해 아시아 역내시장에서의 선도 기업이 되는 목표를 이루자"고 말했다.

이날 박 사장은 해상과 육상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수선박, 장기근속자 및 모범사원들에게 상

금과 순금상패를 포상했다.

한편 태영상선은 4월4일 임직원 단합을 위해 관악산(본사/인천사무소)과 금정산(부산사무소)으로 단체산행을 다녀왔다.

## 티피씨코리아

매출액 2배 증가

티피씨코리아(대표 정신중)가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전년대비 매출이 2배가 넘는 성장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피씨코리아가 최근 발표한 2008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티피씨코리아는 2008년 한해동안 8,825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대비 무려 123% 증가하는 성장세를 이어갔다. 티피씨코리아는 2007년에도 전년대비 138% 증가한 3,958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티피씨코리아는 이와 같은 매출 증대에 힘입어 영업이익도 전년대비 94.8% 증가한 418억원을 달성했고 당기순이익도 전년대비 177% 증가한 404억원을 기록했다.

## (주)한진

친환경 LNG 화물차 첫 운행

종합물류기업 (주)한진(대표 석태수)이 친환경 물류 환경에 앞장서기 위해 LNG 화물차 운행에 본격 나섰다.

한진은 정부가 지원하는 환경개선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한 'LNG 엔진개조 사업'에 참여해 LNG 엔진개조 혼소(경유+LNG)차량 4대에 대한 개조 작업을 3월10일 완료했다. 이 차량들은 인천, 평택, 대전 등 LNG 충전소(대전, 평택, 포항)가 있는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한진은 택배 및 컨테이너 화물차량에 LNG 엔진 개조 차량을 지속 도입하고 하역장비를 전기식으로 교체하는 등 선도적인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한진 관계자는 “LNG 충전소가 확대되는 추이에 따라 전국 간선 택배차량 및 컨테이너 차량에 대해 개조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LNG 화물차는 경유차에 비해 연비가 10%가량 낮은 반면, 주행원가는 20%정도 저렴하다”며 “1회 충전으로 600km 이상의 장거리 운송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도 적다”고 설명했다.

향후 그린물류 시대 도래는 물류기업들에게 비용 절감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한진은 기존 경유용 지게차, 항만하역 장비 등의 물류 작업장비를 전기식 전동기로 교체하는 등 일선 작업현장에서부터 친환경 물류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택배사업의 경우도 'GPS, PDA' 등 최단거리 운송이 가능한 첨단 택배IT 시스템 도입, 택배차량의 지속적인 '배기가스 감축장치' 장착 및 저공해 차량인 천연가스(CNG)차량 개조 등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택배사업 체제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진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50여대 규모의 LNG 혼소차량을 추가로 도입하는 등 녹색물류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물론,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제품의 활용 증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물류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대한 책임이 여타 산업에 비해 막중하기 때문에 관련 업계의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교통·물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에서 20% 가까이 차지한다.

## 한진중공업

### 제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한진중공업이 3월20일 오전 9시 서울 구의동 사옥에서 제2기 정기주주총회를 가졌다.

이날 건설부문 송화영 사장은 주총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금융위기 등 매우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매출 3조 8,480억원, 영업이익 5,104억원, 당기순이익 630억원을 시현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 한 해 경영목표를 “정도경영을 통한 재도약 기반 구축”으로 정하고수주 4조 8,300억원, 매출 3조 4,400억원, 영업이익 3,300억원을 목표로 삼아 조선부문의 대형조선소 기반 구축과 건설부문의 수익성 강화를 통한 내실구조 확보, 주주중시의 투명경영과 가치경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에서는 △제2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4개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배당은 보통주 1주당 주식 1%와 현금 2% 배당을 결의했다.

이번에 선임된 이재용 조선부문 대표이사는 한진중공업그룹 내 대표적인 재무통으로 1948년 서울출생, 건국대 경제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한진중공업 회계담당 이사, 사업관리담당 상무, 한진도시가스(주)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한편, 지난 3월18일 한진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한진도시가스(주)는 이사회와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심정섭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심 대표이사는 경기고와 서울대 공업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한진중공업 마닐라지점장, HHIC-Phil(수빅조선소 법인) 법인장을 역임했다.

## 한진해운

정기주주총회 개최



한진해운(대표 김영민)은 3월20일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사옥에서 제71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액면가액의 10% 현금 배당을 의결했다.

한진해운 대표이사인 김영민 사장을 비롯하여 회사 경영진 및 주주 등 3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주주총회에서 2008년 매출액 9조3,558억원, 영업이익 3,344억원, 당기순이익 3,204억원 등의 재무제표를 승인했다.

또한 1999년 이후 10년 연속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주주 가치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한진해운 김영민 사장은 “한진해운이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주주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와 전폭적인 지지가 가장 큰 힘이었다. 고객에게 더욱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 고객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초일류 종합물류기업’이 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향상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진해운은 2009년도 주요 사업 방향으로 질적인 내실성장과 미래를 대비한 핵심역량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면서, 3자 물류사업, 전용터미널 운영사업, 수리조선소 및 선박관리사업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운물류 연계 사업다각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인 내부 혁신을 통해 회사의 운영체계를 더욱 선진화시킬 방침이다.

## 현대상선

휴대폰 문자안내 서비스(SMS) 실시

현대상선(대표 김성만)이 국내 최초로 화물 위치를 실시간으로 고객의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안내 서비스(SMS)'를 실시한다.

현대상선이 이번에 도입한 SMS 서비스는 해운업에 IT 기술을 접목한 현대상선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국내업계 최초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해운업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현대 계열사인 현대U&I의 IT 기술과 현대상선의 노하우가 조화를 이루면서 결실을 보게 됐다.

현대상선 SMS 서비스는 컨테이너가 현대상선의 선박에 선적되는 순간부터 선박이 목적지에 입항하거나 화물이 수입업자에게 전달되는 각 과정마다 문자 메시지가 고객의 휴대폰에 전달된다. 현대상선은 앞으로 이 서비스를 확대시켜 화물 예약상태 및 스케줄 변경, 송장(INVOICE) 관련 정보까지 서비스할 방침이다.

현대상선 고객은 누구나 홈페이지(hmm21.com)에 신청하면 SMS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현재는 국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SMS 서비스는 컨테이너 화물 운송도 택배처럼 실시간으로 문자안내를 받아볼 수 없을까 하는 단순한 물음에서 시작됐다. 고객의 편의 확대뿐 아니라 업무효율성 증대와 비용절감까지 1석 3조 효과가 있어 벌써부터 관련사 및 하주들로부터 호응이 대단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부분 해운회사는 고객들의 전화 문의



에 직접 답하거나 홈페이지, E-mail, Fax 등을 통해 위치정보를 제공해 왔다. 현대상선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고객들 전화가 10%정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해운업 불황시기에 사소한 부분부터 고객을 우선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특히 현대그룹 내 IT서비스 기업 현대U&I와 적극적 업무협력으로 한 차원 높은 e-Business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현대상선은 향후에도 현대U&I와 협력하여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한 해상 위치정보 확인시스템인 'u-Port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등 e-Business 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흥아해운

제48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흥아해운(대표 이윤재)은 3월20일 송파여성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제48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2008년도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의 일부 변경,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보수한도 승인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이날 승인된 재무제표에 의하면 흥아해운은 2008년 전세계에 불어닥친 금융위기와 고유가 등 불리한 해운환경에도 불구하고 2007년 대비 5% 성장한 6,006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고, 흑자전환에도 성공하여 2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

였다. 또한, 흥아해운은 주주 중시 경영의 일환으로 주당 15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하였다.

이날 총회에서 흥아해운 이윤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9년도에는 꾸준히 수익성을 개선시켜가는 질적 경영을 통해, 회사의 가치를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특히 컨테이너선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선대와 항로를 수익성 위주로 운영함과 동시에 영업력을 강화하여 고부가가치 화물집하에 전력을 다하고, 케미컬탱커 부문에서는 최신 선대를 꾸준히 확보하여 인디아를 넘어 중동 및 유럽과 미주지역까지 SERVICE 영역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 뿐만 아니라 레저, 에너지, 환경 등 미래 성장사업에도 회사의 역량을 집중시켜 사업다각화와 수익다변화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하였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은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흥아해운 임직원들의 모습에 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이윤재 회장은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 인천항만공사

청년인턴사원 승선근무 실시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종태) 청년인턴사원들이 인천에서 중국을 오고가는 카페리선에 승선, 선상근무를 통해 단순 업무보조가 아닌 실용성 높은 업무



를 수행하는 값진 경험을 했다.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김종태)는 3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동안 청년인턴사원 10명을 대상으로 인천-청도 간 카페리 운영사인 위동항운의 지원을 받아 선상근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박 3일 간 인턴사원들은 인천-청도를 운항하는 위동항운의 '뉴골든브릿지 V'호에 승선해 선사 직원과 동일한 여객업무를 수행했다.

이번 선상근무 인턴십프로그램은 IPA의 특성을 살린 현장교육프로그램으로 인턴사원들로 하여금 해운항만분야의 실용지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특히 다른 공공기관에 채용된 인턴사원들이 단순 업무보조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과는 달리 IPA는 지난 2월 채용 당시부터 직무에 맞게 해당전공사 10명을 채용해 현재까지 1명의 퇴직자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테면 문헌정보학과 출신은 사서업무, 토목 관련 전공자에게는 항만개발 및 시설관리업무를, 컴퓨터그래픽 전공자에게는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인턴사원들의 경력관리가 가능하도록 인턴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IPA는 이번 승선근무프로그램 이외에도 인턴사원들에게 사이버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멘토링제도를 활용한 현장업무교육도 병행하고 있으며, 지난 달에는 김종태 사장과 인턴사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 케이엘넷

‘그린물류IT’로 녹색성장 선도

물류IT전문기업 케이엘넷(대표 박정천)은 2009년 매출을 340억원으로 정하고, 2분기부터 그린물류IT 서비스를 통해 녹색성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케이엘넷은 수송, 보관, 하역 등 물류단계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의 최소화를 통해 그린IT실천에 더욱 앞장서 나간다는 방침이다.

케이엘넷은 이를 위해 △프리즘 등 기존 서비스와 u-IT기술을 연계한 그린전자물류서비스 추진 △RFID/USN방식의 폐기물 리사이클링사업 △저전력 LED항만조명 구축사업을 3대 그린IT 핵심사업으로 설정했다.

먼저 프리즘 등 기존 자사 서비스와 RFID기술 등 최신 IT기술을 융합하여 전물류과정에서의 전자문서교환(EDI)을 촉진하는 한편,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송 및 최적화된 운송 라우팅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하고 저탄소 녹색물류 성장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또, RFID 부착을 통한 폐기물 리사이클링 사업도 본격 추진할 계획인데, 이는 기존에 GPS와 바코드 방식으로 육상과 해상 폐기물위치정보만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GPS와 RFID/USN방식을 통해 폐기물 위치정보와 상태 모니터링, 보안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는 폐기물의 위변조 방지는 물론, 자원 절감과 친환경 제품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항만 등 물류관련 시설에 LED 저전력조명 설치사업을 본격화한다. 국내조명의 약 30%를 LED조명으로 교체시 연간 약 160억kw의 전력절감과 약 680만톤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어 물류관련 시설에서의 LED저전력 조명교체사업만으로도 에너지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엘넷 박정천 대표는 "그린IT를 통해 회사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은 물론, 물류전분야에서의 전자문서 확산과 RFID를 통한 물류효율화를 통해 환경부담 경감과 비용절감에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17기 P&I School 개설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orea P&I Club, 대표 이윤재)은 4월2일부터 제17기 P&I School을 개설했다.

P&I School은 해운회사 보험담당 실무자의 Claim 처리 절차 및 관련법령, 해상보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K P&I가 개설한 과정으로 2달여간 진행이 된다.

제17기 P&I School은 4월 2일부터 5월 28일까지 진행되며 교육신청은 메일(donkkim@kpiclub.or.kr)로 회사명, 부서, 직위, 성함, 연락처를 통보하면 된다.

※문의: KOREA P&I Club 김동근 대리(전화 3701-6802)

## 한국해기사협회

2009 정기총회 개최



한국해기사협회(회장 민홍기)가 3월19일 오전 11시 부산 중구 중앙동 부산마린센터 3층 국제회의장에서 2009년도 제5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육해상에서 근무하는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을 비롯해 이병건 전 회장 등 전현직 협회 임원들과 외부 손님으로 오거돈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강신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송정규 한국도선사협회장,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전무 등 해운 관련 기관 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해기사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2008년도 사업실적 △2008년도 결산승인 및 감사보고 등을 승인받고 한국 해기사의 권익증진과 지위향상 및 국내 해기사의 수급과 고용안정화 방안 연구, 협회 이미지와 해기사 홍보 및 조직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해기사협회는 이에 따라 올해 주요 사업으로 △국내 해기사의 직업생활의식 조사 및 해기사 공급안정 방안 등에 관한 연구 △협회 전산화 및 홈페이지 개선 △해기사 시험문제 공개 및 문제집 발간 △해기사 선원 관련 법령의 개선 및 연구 △협회 기관지(海바라기) 전면 개편 등 특별사업과, 정책 활동을 비롯, 조직활동, 복지활동, 홍보활동, 경영합리화 사업 등 부문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해기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국내 해기사의 권익신장과 협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진방 한국선주협회 회장, 송정규 한국도선사협회 회장, 김규섭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장, 김민철 해상교통 시설과 사무관 등 4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 해운 일선에서 근무하며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과 해기전승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한진해운 기관장 박한성 씨 등 6명에게 모범해기사 공로패를 수여한다.

[공로패 수상자 명단] △한국선주협회장 공로패 : 박한성(한진해운 기관장), 홍성열(고려해운 선장) △한국선박관리협회장 : 전성표(한진에스엠 기관장), 홍정욱(범진상운 선장) △한국도선사협회장 : 민광기(STX팬오션 선장) △선원복지센터이사장 : 김석중(조광해운 기관장)

## 한국해운조합

2009 정기총회 성료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정유섭)은 3월17일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200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해 지난해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해 조합과 업계가 추진해야할 사항 등을 논의했다.

박홍진 회장을 비롯한 임대의원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2008년도 결산 및 잉여금 처분(안) △한국해운조합 정관 일부개정(안) △임대의원 선거규약 일부개정(안) △인천항 여객선터미널 관리운영 주체 변경 계획에 따른 조합 출자(안) 등의 안건이 상정돼 처리됐다.

또 △2008년도 제3회 임시총회 개최 결과 △2009년도 터미널 특별회계 예산 △해운법 개정 추진 경과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2009년도 선원업무 추진계획 △여객선 전산매표 계약 체결 △조합 보조항로 운영 추진 △연안해운 활성화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 총 8건의 보고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총회 참석자들은 지난해 고유가·고환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조합에서 총력을 기울인 결과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원 확대, 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제도 개선 성과가 있었으며, 시중보험사 대비 20% 저렴한 공제요율로 조합원 부담을 완화하고, 수납공제료 500억 원 돌파, 해상보험 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통해 2008년은 조합 해상보험 경쟁력을 강화한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운항원가는 증가하는 반면 물동량은 감소하여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해운업계의 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

해 조합 임직원들이 힘을 모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한 운송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연안해운에 정부와 국민적 관심이 보다 증폭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 이를 위해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쓰레기 수거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이용우)은 2009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1개 시도 관내 해안가 및 해역에 버려진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국토해양부의 지원으로 시행되는 금번 사업은 총 178억의 정부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연안해역에 침적된 쓰레기 수거와 해안가 방치쓰레기 청소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쾌적하고 청결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실시되는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은 1999년에 처음 시작해 연간 80~90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 항만 및 어항 구역을 비롯하여 전국 연안해역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여 해양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한 사업으로 평가되어 왔다.

특히 금년은 정부재정 지출이 크게 확대되었는바 해양환경관리공단은 3월 23일부터 거제도 옥포항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을 시작으로 15여개 해역에 사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연안거주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전국 306개 해안가를 대상으로 쓰레기 수거사업을 시행, 연 9만여명의 일 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